

陽川許氏世譜序 (解)

成周小使掌邦國之誌(이책의 이름)에依하면 世代之系統을定하고 祖上의사당차례를 分辨하

는것이 譜牒의 생진바 연유이며 宗法의 세운바 연유인것이다。 사람이 祖

上을 尊重히여기고 宗親을尊敬할줄을알아야 報本追遠之誠을 敦篤히하고 倫族

親睦之情을 두터이하야 위에서는 다스리기가 쉬우며 아래서는 고회되기가

쉬운것으로서 대개이것이 또한法을 밝히며 制度를整備하는 까닭인것이다。周

의 修譜制度가 이미 懈弛沈滯되어 譜牒이 不明하고 宗法이 달라서 履行되지
아니하여 人家宗族이 흠어지고 이미 그 源本을 알지 못하며 그 派屬도 알지 못하여
길리범연하게 지내며 서로 親愛의 道가 없어 집에는 厚倫함이 없고 나라에는 世臣이
없으니 孝悌를 어찌 興하게 할 수 있으며 忠義를 어찌 세울 수 있으리요 비록 中國
에서는 아직 周制의 餘代로써 管掌하는 官職者에 依하여 修譜牒의 施政이 有하며
民間도亦是 自修하는 風習이 되어 있어 明系知族하지 못하는 者가 거의 없는데 我國
은 東邦禮義之國이라고 稱號하는 나라로서 위에서 立政하는 것이나 아래의 爲俗者
나 모두가 中華之風이 有한데 唯獨 譜牒에 있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間或 修
譜하는 者있으나 너무 疎略하며 或中廢하여 繼續하지 못하는 故로 비록 名門世族
이라고 할지라도 源本이 내려온 바를 알지 못하는 者 많거늘 하물며 그 宗族을 거두고
倫誼를 두터히 하는 道를 바랄 수 있으랴 우리나라의 강토는 中國과 같이 廣大하지 못하
며 士族과 門戶를 가진 者도 中國과 같이 數多하지 못거늘 中國이 四海의 廣大함
과 人民의 多數로도 能히 하고 있는데 하물며 我國에서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國家의 法的制度가 有하면 일이어렵지 않으며 致化에도 甚히

有益할 것이다. 安國은 사사로운 생각에 國家官制로 萬若忠翊府에 原從功臣을 爲하여 世系譜牒을 修하는 職責을 設置하여 아마 或是士大夫의 譜牒事도 兼掌하게 하면 別途로 新官을 設置하지 아니하여도 足히可行할 수 있을 것이다. 程子께서 이른바 人心을 管攝하여 宗族을 거두고 風俗을 두터이 하여 人倫을 두터이 하여 宗族을 거두고 風俗을 두터이 하여 譜系를 밝히고 世族을 거두는 者라고 하는 것이 正히 이 일을 가르친 것이니 治道에 關係가 있지 아니하겠는가 只今 비록 할 수 없으나 그러나 所謂名族이며 禮義之家로서 祖上을 尊重히 하며 宗族을 尊敬하는 義를 생각하며 宗族을 거두고 人倫을 두터이 하는데 有意한 者 果然能히 各者가 家譜를 修하게 되면 風俗이 스스로 아름답고 國家가 또한 世臣의 忠義의 힘에 힘입을 수 있을 것이다. 近世에 安東權氏의 族譜 權文景公躋에서 始作되어 마침내 達城徐相公居正의 손에서 完成되었다. 至今士族으로 源派를 考知하고 追遠保族之思를 일으키니 그것이 風化를 돕고 돕는 것이 적지 아니한지라 可惜하도록 위에서 勸하여도 아래에서 應하지 아니하면 效果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나 安東權氏의 뒤를 이어 修譜하는 者 우리 外家인 陽川許氏인데 始祖諱 宣文이 高麗朝를 도와 三韓을 統一하여

孔巖村에 賜邑한後로 여러代 貴顯德業과功名이 世上에 빛나게 되어 至今까지
 光임없이 東國의甲族이 되었다。安國이 일찍 先世의 뒤은바家譜와 屢代内外世次官
 位籍貫을 얻어 成編하고자 하였으나 罪罷로因하여 田里生活中 力不足이었다가
 이제 吏曹叅判許洽君이 叅判의弟 司諫院沈君과 더불어 内外世次官位名諱籍貫을
 가지고 國史集錄을 調査參考하여 生卒及墳墓等を增添記錄하고 將次諸族에게傳布
 하여 代代로 지키게 하였으니 可謂孝睦之道를 敦篤하게 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安國의 뜻이 君을 만나서 드디어 이루어지니 어찌多幸한일이 아니겠는가 萬若이제
 内外諸族이 君後의子孫된者가 모두다 君의 마음씀과 같이 譜系를參考하여 先代의
 慶事와 낫은일을 累積한것을알아 스스로有益한바가 되어 代代로 忠孝의業을
 守하고 報本の誠을 다하며 敦篤의義를 힘쓰면 許氏의門中福祚의隆盛함이 將次
 더욱무궁하여 東方甲族의矜持를 가지게 될것이요 萬若 그譜가完遂된다면 또
 兩君의 그功을畢함에 對하여 感謝와囑望을 마지않는바이다。

慕齋 金安國 撰

族氏

陽川許氏族譜序

族氏之書 古太史所職 周官小史奠係世辨昭穆 春秋祭酺 族師書孝友睦婣 有學者
其有不孝不友不睦不婣者 大司徒以鄉刑糾之而主孝 嗚呼 聖人之教遠矣 祖而父
父而子 子而孫 諸父分於祖 兄弟分於父 由再從三從以降 至於族子族孫 係屬愈
遠 親愛愈踈然推其本 則出於一祖 實一氣而分 故人之性 莫不知愛類而相仁 蓋
聖人之治 因其性而師之以仁 此周官之教也 族譜之書 周官奠係世辨昭穆之遺也
吾族氏 出自駕洛譜牒所記 自我孔巖村主以後 著於譜牒 號爲甲族 自得姓來二十
六世七世 凡七百餘年 說部曰許氏終麗五百年 作相者十一人 堯樞者六人 學士九
人 尚主者五人 仕於元者一人 封君者十四人 至本朝 相二人 贊成二人 六卿四
人 功臣三人 學士十二人 又自我 仁孝以來 名臣貴人又不止一人二人而已 可謂
祖先 積仁累善之報也 我八世祖典理判書始修赤內族圖 其後忠貞公金文敬公草堂相
繼增修之 又其後竊翁傳其事 使後生苗裔皆知某祖出於某祖 某祖分於某世 某爲昭
某爲穆 共守世訓以篤仁愛 亦族譜之教也

辛亥臘月五日

眉叟穆 謹序

족씨 (族氏)

양천허씨 족보서 (陽川許氏族譜序)

족씨에 관한 전적은 옛날 태사(太史)가 말았던 것이다. 주관(周官) 소사(小史)는 왕족의 계보를 기록하고 소목(昭穆)을 분별하는 일을 맡았다.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고 음복하는 자리에서 족사(族師)가 효우(孝友睦婣)를 적었다. 지식에 있는 자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알거나 형제간에 우애를 알으며 친족들에게 화목하지 않거나 이척들에게 화목(媿)하지 않으면 태사도(太司徒)가 향형(鄉刑)으로써 다스리되 효도를 첫째로 하였다. 아! 성인의 교훈이 멀어졌구나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들 아들에서 손자에 이르는 데 백중숙계부(伯仲叔季父)는 할아버지에서 갈린다. 재종(再從) 삼종(三從)에서 族子族孫 이하까지 계통(系統)이 멀수록 친분과 우애도 소원해진다. 그러나 그 근본을 소급해보면 한 조상에서 나왔으니 실은 한 기맥(氣脈)에서 갈라진 것이다.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란 같은 류類를 사랑하면서 인(仁)할 줄 모르는 자는 없다. 대개 聖人의 政治는 그 본성을 따라 仁으로 서 이끌었으니 이것이 바로 주관(周官)의 교육 방법이다. 족보는 周官이 왕족의 계보

를 기록하고 昭穆을 분별하던 제도의 남은 풍습이다. (昭穆은 증조에서 추조를 모시는 차례인데始祖

들은 동쪽에 모셔 昭라고 하고 손자는 서쪽에 穆이라 하여 이런 차례로 계속 내려간다. 周禮 小宗伯註) 우리 陽川許氏는 駕洛에서부터 나왔는데 보첩(譜牒)

에 記錄된 것으로는 公암촌주(孔巖村主)이후부터 보첩에 드러나서 갑족(甲族)으로 불

리었으며 성씨를 얻은以來 二十六 二十七代로 무려 七백여년이 된다. 설부(說部

十三經의)에 보면 許氏는 고려 五百年 동안에 正승十一인 관추(筮樞 中樞院使)가 六인 학

사(學士)九인 부마(駙馬 王의)五인 元나라에 벼슬한 一인 봉군(封君)十四인이고 본조에

들어와서는 正승이 二人 찬성(贊成)二人 관서(判書)四人 공신(功臣)三人 학사(學士)十

二人이었다. 그리고 인조 孝宗 이래로 名臣貴人이 또 한두사람에 그치지 않았

으니 조선(祖先)이 仁德과 善을 쌓은 같음이라 할수 있다 우리 八代祖 전리관서(典理

判書 吏判判書)가 맨 처음으로 적내(赤內 京의 지방)족도(族圖)를 작성했고 그후 충정공(忠貞公 許

號의 蓋) 김문경공(金文敬公 묘재 安國의 시호) 초당(草堂 려업의 호)이 뒤를 이어 보충해서 되었다. 그후 유옹

(疏翁 許濬의 호)이 그 일을 물려받아서 후세에 태어난 자손들에게 어느 할아버지는 어느

할아버지에 게서 나왔고 어느 할아버지는 몇대에서 갈렸으며 어느분이 昭(손)가 되고

어느분이 穆이라든 사실을 알도록 해주었다. 다같이 祖上의 教訓을 지켜 인애(仁愛)

물 푸 푸의 하 자 구 것이 푸란 族譜의 고 후의 리。

辛亥(西紀一六七一年)

十二月五日

眉叟

穆은

삼가

서한다

陽川許氏監司派譜序

무릇族譜는 氏族의系世와 昭穆을 밝힘으로써 祖宗의源本을 眞考하고 子孫의 派支昭穆을 밝히어 宗祖敬宗의道를 振作하며 宗族敦睦의實을 거두기爲한것이 나 이法이古代周나라의 太師의職에서 비롯하여 今日에至하였다 生覺컨데 祖而父하고 父而子하고 子而孫하여 千支萬派로갈라니 代益遠하여질수록 路上人과 다름이없이되어 同根同血임에도不拘하고 相疎相遠하여 他人과 다름이없이되나니 어찌人倫常道라할수있으리요 樹木이茂盛하면 千枝萬條로枝葉이分生하나 根源을 따지면 一根同株에서生成하였으며 人體의血脈도 各肢各體에分散하였으니 一心臟에根源하였으니 어찌疎하고遠할수있으랴 그러므로同姓同本은百代之親이라 先賢들이 말씀하시지않았던가 우리陽川許氏가 駕洛國太祖王께서 賜姓하신以後로 新羅와 高麗와 李朝를지나 二千餘年에 이르렀도다 文獻을 憑據할수없어 上系年代는 詳考할질이없으니 始祖孔巖村主以後로 世世로積仁累善하여 道德과文章과 忠孝와節義와 偉勲盛業의赫々함은 史乘에記載된바이며 先賢의著述에갓쳐져 있으니 다시贅言의餘地가없겠다 代序의繼承도 五十世에達하였으니 可謂源本

이 멀다하지 않음을 두 없으며 派支가 섞이지 않는다 할 수 없겠다. 그러나 예로부터 至今까지 修譜를 繼繼承承하여 源本을 말하고 派支와 昭穆를 分辨하여 宗祖睦宗의 義를 敦篤히 하였으니 所謂東方甲族임을 自處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겠다 族侄 埴은 監司公 諱渭의 十五代孫이며 監司公은 草堂公 諱暉의 仲父이 시기 도하다 埴의 十代祖 諱培께서 亂을 避하여 嶺南으로 落鄉하신後 後孫들이 流離零落하여 家業을 繼承하지 못하고 源本과 派支에 疎昧하여 累代를 나려오던中 埴이 비로소 派支와 昭穆를 찾아 알고 至今까지 모으던 監司公의 墓所도 찾아 奉審하는 一方 榮州宗中에 알리고 나가 아가 派譜를 計劃着手하여 完成段階에 이르니 壯하도다 可謂 敬祖敦宗의 道를 다하였다 하겠다. 또 이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 吾眉叟公 派의 樞君이 十分協力 하였음을 致謝하여 마지 않는다 이 派譜刊行이 完了되어 監司公 後孫들의 宗祖敦宗과 遺訓 繼承의 實이 十分 擧揚되기를 빌어 마지 않는 바이다.

壬戌 西紀一九八二年 二月

眉叟先祖十一代後孫 某 謹序

陽川許氏監司公派世譜序

人類의 아득한歷史는 그根源이深古悠久하여서 起源을正敲할길이 曖昧하며 未
來도 또한判識하기가 甚難할것입니다만 記錄으로써追徵할뿐인데 大概우리民族
은 史的發展의바탕이 中國으로부터淵源됨이 많았는데 一氏族의興亡盛衰와 毀譽
및悲歡의자취를간추려收錄한 所謂族譜亦是 蘇氏의譜理를 模倣한것이리라 또한
萬事가 다그러하거나와 氏史도時의遇不遇로말미암아 運勢에도 一榮과一落이 있
을것이나 吾派는그類例가 더욱甚하여 顯貴한先祖를되신甲族이 今세에 이르러서
는 零落하고衰殘한地境에處하였으니 實로 今昔之感이油然而다 내가繙求한 諸
材에依하면 陽陵君이撰하신 普州皇太后陵碑文에 客於東土한데 悲無傳姓이라
하시니 首露王이王子中에서擇하여 許氏로賜姓한以來 孔巖村主가麗太祖의 南征
補功한뒤로 世々冠宥한班例로서 孔巖君은 易姓遷位時에 遷去杜門洞하니 七十
二人中의한분이며 鳳生鳳毛하고 豹生豹班이라는原則대로 十九世先祖 監司公諱
滑계서는 黃海監司를除授하시고 先祖持平公諱時계서는 官이永川守에 이르렀으나
天道가乖離하여 泉壤之禍에連陞하니 吾派之勢는實로目不忍見이었으리라 本譜派

祖梨峴公諱培께서는 當時四顧無親한 가운데서 孑孑單身으로 救命落鄉하시니 큰

梨峴村이라 今榮州市可興二洞이며 藏衣之地는 卍치실¹이라는由來가 至今도人口에

膾炙하고있으니 炎涼之世에 있어서 斷腸之象徵이라 或參考가 될가 加筆하려니와

傍祖襄安公의 忠節慷慨之心은 朴俞等大臣과 더불어 吾東史에 기리 빛이 될 것이며 草

堂公兩代는 그文章이當代에 絶倫하고 蛟山公이 著述한 洪吉童傳은 우리民族文

學史에 있어서 萬古의 古典이며 不朽의 大作으로 代表的인 世界的 作品이고 蘭雪軒

또한才閨로서 稀代의 女流文章家였다 그러나 轉變無常한 世相이라 黨派의 派爭의

渦中에서 正義와 玉石이 顛倒되는 當時나 喬木이 倒於風이라 畢竟그분들의 廣濶한

器局과 卓越한 先見之明은 昏主時의 奸臣李爾瞻等의 猜的이 되어서 비릇되었다。

그러나 嘉善大夫同知公(諱譜名坦 本名榮福 又名永福)의 盡慮로 咸豐初에 雪冤이 되었으나

僉宗은 無關하였으니 眞實로 痛恨할 일이었다 去歲 不肖 吾輩가 各教旨를 搜蒐箱函하

고 傍照碑文하여서 流零時에 訛造한 派系의 正統을 確手正訂할 수 있는 基礎를 마련

하였다 일찌기 程子는 이르기를 天下의 人心을 管攝하는 데는 宗族을 收合하고 風

俗을 醇厚하게 하여 그 根本을 不忘하게 하는 所以는 譜系를 바라게 하는 데 있다고 하였

은니 吾派도 이機會에 즈음하여 內外世次官位名諱를 正確하게 訂錄하고 先祖
들의 辛苦를 거울삼아 至誠으로 宗誼를 敦篤하게 한다면 吾派의 隆盛도 翫게 이룩
되리라 이에 있어서 四從弟 埴이 此際에 派譜를 編刊하는 것이 不二의 機會임을
提論하니 僉員이 欣然應從하여서 곧 그 刑役事業을 推進하는데 咸曰 나에게 首
辭를 付託하나 不學庸劣한 處地가 어찌 敢히 堪當하라 衷心으로 辭讓하였으나
不得已하여 向後 宗誼가 疎遠함이 없을 것을 懇曲히 바라면서 今後 博雅를 기다릴
뿐이다.

檀紀 四千三百十四年 辛酉臘月

監司公十五代孫

璋 謹序

우리人間은 誰人을莫論하고 各自 自己의祖上이있을것이다。 그祖上은바로自己의根源이며 뿌리인것이다 鬱蒼茂盛한樹木에는 튼튼한根源(뿌리)이있는것과같이 우리人間도 偉大하신根源(先祖)없이 내(我)가 存在할수없으며 自己의根源(先祖)을爲하는誠意없이 自己의出世나 子孫과親族들의 繁榮을바랄수 있겠는가 人間이萬物之靈長이라함은 自己의根本을알며 親族을아는데있을것이며 비록遠親이라도 同姓同本을만나게되면 서로親近한마음으로 先祖를생각하게될것이고 또이야기를 나누게되는것은 骨肉之情으로서 이것은또한天倫之情을 하나의冊子에記錄하여 保管하는것이바로族譜(譜冊)라할수있다。 우리陽川許氏는古代로부터 東方之甲族이라 하였으니 始祖諱宣文으로부터 文敬公諱珙· 堊堂公諱錦· 尚友堂忠貞公諱琮· 文貞公諱琛兄弟· 眉叟文正公諱穆· 默齋公諱積· 草堂公諱暉· 水色公諱摘· 監司公諱渭· 할아버지들 麗朝와李朝兩代에걸쳐 數많은人材가배출되어 偉大한業績과 國家에 끼친貢獻이至大하였음은 世人이周知하는事實이다 吾派는不幸하게도監司公할아버지의長孫諱禎 即우리의十三代祖께서 仁祖六年戊辰(麗天三年)에 柳孝立·鄭汝 등의

連繼事件으로因하여 獄伏法으로滅族之禍를當하여 長孫은絶孫되고 次孫은嶺南으로

三·四孫은救命之策으로 北쪽에흐터진後 近於三百餘年間 先祖를망각하게되어

吾派祖의신監司公墓前에 參拜치못한것은 子孫된道理로서 眞心으로悚懼한心情

禁할것없다 其間 許氏中央大宗會에서 大同譜를發刊하는此際에 吾派의派譜刊行

을할것은 生覺하고 東厓公派의族叔樞氏와 屢次協議하여 辛酉年九月下旬頃에

族叔樞氏, 大提學公派의大父奎氏와같이 若干의祭需를準備하여 龍仁郡遠三面孟里

陵内洞을 尋訪하여 그곳陽平君派門丈이신 塾氏의案内로 先祖의墓所와 監司公

할아버지의墓所를省墓하였다。實로靈域의位置와 石物들의雄大함은 其時우리先祖

님들의 偉大하였음을共感하고 同年秋, 時祭時에 門中에 그뜻은이야기하였던바

門中이感服, 再參拜를決議하고 同年十月中旬에 宗孫一行, 四從叔炆氏·燐氏, 堂叔

炆氏·炆氏, 四從兄璋氏, 從弟塏玉 등과 祭需를장만하여 陵内洞을尋訪, 水色公派의

炫氏의案内로 有史以來 처음으로 感激的인省墓를하고 派譜의必要性을切實히共感

케되어 門中여러분들의積極的呼應과協助로서 그結實이맺어지는이時點에 諱坦祖

上님의教旨등을 體系的으로 다시整理하여 成功裡에編纂케되었음을 眞心으로

連繼事件으로因하여 獄伏法으로滅族之禍를當하여 長孫은絶孫되고 次孫은嶺南으로 三曲孫은救命之策으로 北쪽에흐터진後 近於三百餘年間 先祖를망각하게되어 吾派祖이신監司公墓前에 參拜치못한것은 子孫된道理로서 眞心으로悚懼한心情 禁할길없다 其間 許氏中央大宗會에서 大同譜를發刊하는此際에 吾派의派譜刊行을할것을 生覺하고 東厓公派의族叔樾氏와 屢次協議하여 辛酉年九月下旬頃에 族叔樾氏, 大提學公派의大父奎氏와같이 若干의祭需를準備하여 龍仁郡遠三面孟里陵内洞을 尋訪하여 그곳陽平君派門丈이신 塾氏의案内로 先祖의墓所와 監司公 할아버지의墓所를省墓하였다。實로靈域의位置와 石物들의雄大함은 其時우리先祖 님들의 偉大하였음을共感하고 同年秋, 時祭時에 門中에 그뜻을이야기하였던바 門中이感服, 再參拜를決議하고 同年十月中旬에 宗孫一行, 四從叔烜氏燐氏, 堂叔 炤氏炘氏, 四從兄璋氏, 從弟堉玉 등과 祭需를장만하여 陵内洞을尋訪, 水色公派의 炫氏의案内로 有史以來처음으로 感激的인省墓를하고 派譜의必要性을切實히共感케되어 門中여러분들의積極的呼應과協助로서 그結實이맺어지는이時點에 諱坦祖 上님의教旨등을 體系的으로 다시整理하여 成功裡에編纂케되었음을 眞心으로

感謝하게生覺하고 本譜編輯에 많은手苦를하여주시는 族叔槥氏에게 衷心으로 感謝를드리는바이며 特히 많은財政的 뒷받침을하여주시는 堂叔炤氏와 四從叔炠氏燐氏燾氏熟氏 四從弟廷行·均行·坤·從弟陸과 監司公의 三孫諱祐의 十三世孫되시는 哲氏에게 甚深하感謝와 崇祖睦族之心에 無限한敬意를表하는바이다。 우리 後孫들은 모름지기 崇祖敬宗의 마음을 繼承承承 子孫된道理를 忘却치말고 只今은 交通의發達로 全國이一日圈이라 先代할아버지의墓所를 隨時로參拜하기바라며 親族間에友誼를 더욱敦篤히할것을 再三希求하는바이다 끝으로 門中各家庭에 無窮한 繁榮과幸運이있기를 祈願하며 跋文에代한다。

西紀一九八二年壬戌二月 日

監司公十五世孫

埴 謹識

陽川許氏監司公派世譜

始祖

孔巖村王系世

許宣文

孔巖村主一作大匡公
駕洛國首露王子錫姓
之後裔世居孔巖縣務
農厚儲 麗太祖南征
食盡兵疲公乃輸犒餽
軍威復振遂克甄萱
麗太祖嘉其功封為孔
巖村主遂為貫籍陽川
許氏公之誕生年於
唐文宗開成二年新羅
僖康王二年西紀八三
七年丁巳生世界年表
對照記載公墓在今陽
川南山而陵谷云而失
傳

五世

孔巖村主 宣文
宣文 一玄 一正
玄孫

載

見上

字壽康 麗文宗壬寅
西紀一〇六二年生開
府儀同三司枝太尉中
書侍郎同中書門下平

二世

子玄

尚衣局奉御追封少府
少監

女權仁幸

安東戶長

六世
平章事公 載 系世

子純

麗睿宗九年宋政和四
年西紀一一一四年甲
午白晞榜丙科及第仁
宗十三年西紀一一三

三世

子元

麗穆宗元年西紀九九
八年宋咸平戊戌乙科
及第歷仕穆顯德三朝
檢校禮賓省卿行內史
舍人知製誥太子司議
郎

人郎中父大匡太師幸○
漢謙戶長同正

七世

子利涉

麗毅宗十二年宋紹興
戊寅西紀一一五八年
金正明榜同進士及第
典廐署令直史館配晉

四世

子正

太子太保行尚書禮部
侍郎夫人江陵金氏父
追封軍器此下脫職名
日躋

子冊戶長正朝○冊子均

八世

子京

古韓章

麗明宗六年宋淳熙丙
申西紀一一七六年泰
幹公榜乙科及第檢校
尚書省左僕射行禮賓

五世

子載

見下

漢右一品別將光漢

九世

子遂

見下

女李世華 真州人
右諫議大夫寶文閣直

陽川許氏監司公派世譜